



차 례

Contents

이슈와 진단	02
중국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시사점	
중국 지방정부 정책 동향	15
중국 '특색 마을(特色小鎮)' 건설 동향	
충남 속의 중국	29
공자의 영정이 모셔져있는 논산 노성 궐리사(關里祠)	
충남 도·시군의 중국 교류 동향	35
2019년 상반기 충남의 중국 교류 동향	
충청중국포럼 소식	40
▶ 제40회 충청중국포럼 소식	41
▶ 제41회 충청중국포럼 소식	43
발간목록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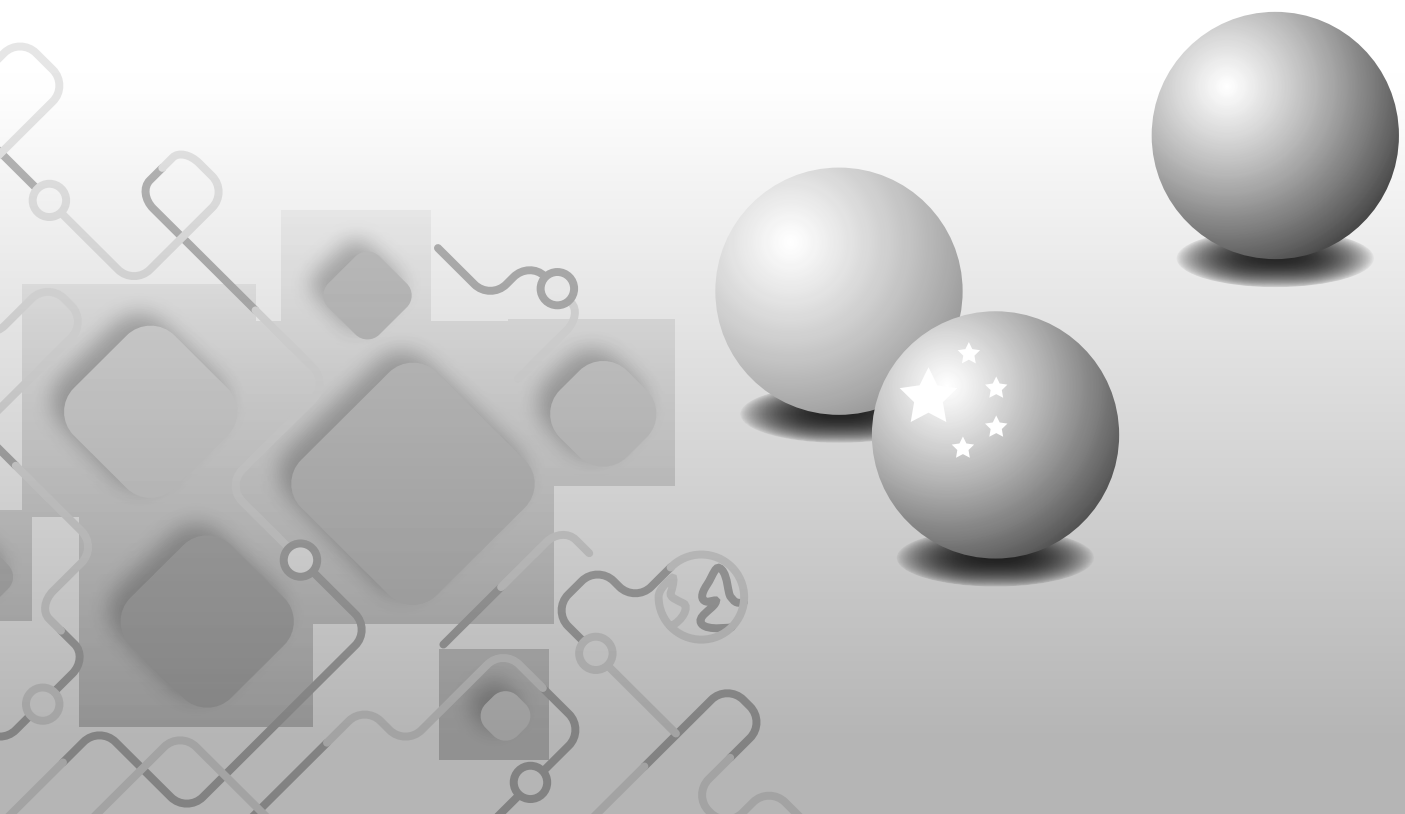


중국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시사점 동북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김현수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중국인민대학 지역경제 및 도시관리연구소 객원연구원



최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도시 축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도 최근 서부 및 동북지역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축소 도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 동북 지역에서는 도시 축소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국과 일본과 같이 선행 경험을 보유한 국가와의 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환경에서 충남은 중국의 축소 도시 현황 및 대응 전략을 면밀히 주목하여 한-중 지방 간 인구감소 공동대응 및 경험 공유와 같은 연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I. 개요

- 2019년 3월 31일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는 『2019년 신형도시화 건설의 중점 임무(2019年新型城镇化建设重点任务)』에서 최초로 '수축형 도시(收缩型城市)'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효율적인 도시화 분포 계획 부문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협조 발전 항목에서 정식으로 언급된 수축형 중소도시는 '군살을 빼고 체력을 길러야 한다(瘦身强体)'며 몸집 늘리기를 엄격히 통제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인구와 공공자원이 도심지역에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¹⁾고 하였다.
- 수축형 도시(收缩型城市; shrinking cities)란 1988년 독일의 학자 하우베르만(Häußermann H.) 및 사이벨(W.Siebel)이 최초로 제기한 개념으로, 탈공업화와 교외화, 고령화 및 정치체제의 전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도시 인구의 유실 및 일부 도시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뜻한다. 또한 수축형 도시 국제 연구 네트워크(Shrinking City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는 2004년에 이미 수축형 도시를 "인구 규모가 10만명 이상인 도시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2년을 초과하여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구조적 경제 위기를 겪는 것"을 뜻한다고 정의하였다. 도시의 축소(shrinking)는 쇠퇴(decline)와 유사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다.²⁾ 하지만 도시의 축소는 단순히 도시 성장의 반의어가 아니며, 성장과 축소는 함께 일어날 수 있다. 산업

1) 원문: 收缩型中小城市要瘦身强体, 转变惯性的增量规划思维, 严控增量、盘活存量, 引导人口和公共资源向城区集中.
2)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최근까지도 '도시의 축소'라는 개념이 정치적으로 금기시 되어왔다. 따라서 도시의 축소 현상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대체 용어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탈도시화 대신 도시재개발, 철거구역을 재개발 구역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화 시대에 겪었던 도시 성장이 반드시 긍정적인 현상만을 수반한 것은 아니었던 것(도시 주택·교통난, 환경오염, 슬럼가 등)처럼, 도시 축소 또한 무조건 부정적인 현상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Oswalt, 2006)

- 중국은 21세기 이후 중소도시에서 주로 도시 축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베이징도시연구실(Beijing City Lab; BCL)에서는 중국 모든 현급시(县级市) 이상의 도시에 대해 2000년과 2010년의 연말 상주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인구 변화를 측정하였다.³⁾ 분석 결과, 전체 39,007개의 도시 중 19,882개가 이 기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면적 324만㎢로 중국의 약 3분의 1 지역을 포함한다(그림 1).

또한 2000년 대비 2010년 도시 인구 밀도가 감소한 지역이 <그림 2>의 푸른색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도시 축소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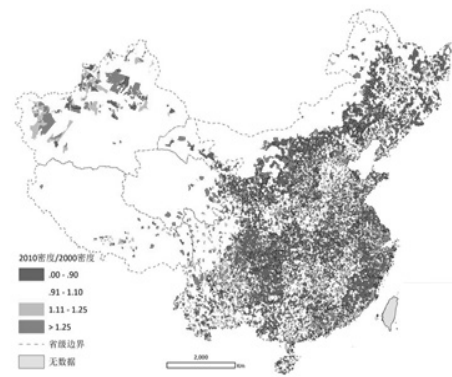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2019년 3월 중국 칭화대학교 도시계획 전문가이자 베이징도시연구실 책임자인 롱잉(龙瀛) 교수는 2019년 현재에도 중국 전체 도시의 1/3 수준인 938개 도시가 수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 1> 중국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감소 도시 현황

자료 : Beijing City Lab 공개자료 재인용.

(<https://www.beijingcitylab.com/projects-1/15-shrinking-cities/>, 검색일: 2019.06.15)



<그림 2> 중국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 밀도 감소 도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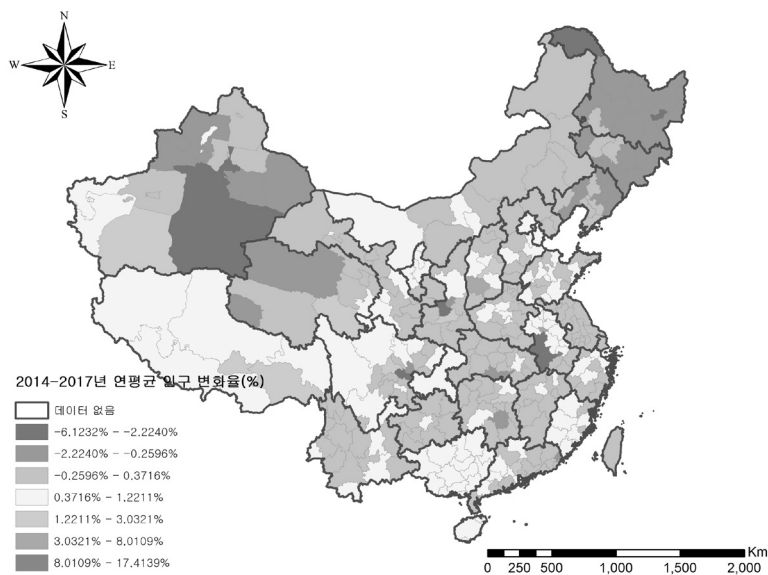
자료 : Ying Long, Shuqi Gao(2019) Fig.12.6 재인용.

-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 간 중국 지급시(地级市) 단위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주로 서북, 동북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3) 이는 정확한 인구 통계 수치를 활용하기 위해 인구 센서스(人口普查)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며, 가장 최근 2회인 제5차 센서스를 실시한 2000년과 제6차 센서스를 실시한 2010년의 현급시 이상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이다

4) 인구통계 데이터는 2015~2018년 각 성별 통계연감에서 취하였으며, 연말 상주인구(총 인구)를 기준으로 하였다. (Jiahui Fan, 2019)

최근 3년 간 총 인구의 평균적인 변화율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0.5% 미만의 변동률을 보였으나, 특히 신장자치구(新疆自治区), 내이멍구자치구(内蒙古自治区), 칭하이성(青海省),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지린성(吉林省), 랴오닝성(辽宁省) 등의 주요 도시에서 인구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쓰촨성(四川省), 산시성(陕西省), 안후이성(安徽省) 등 중서부 지역의 일부 중소도시에서도 인구의 소폭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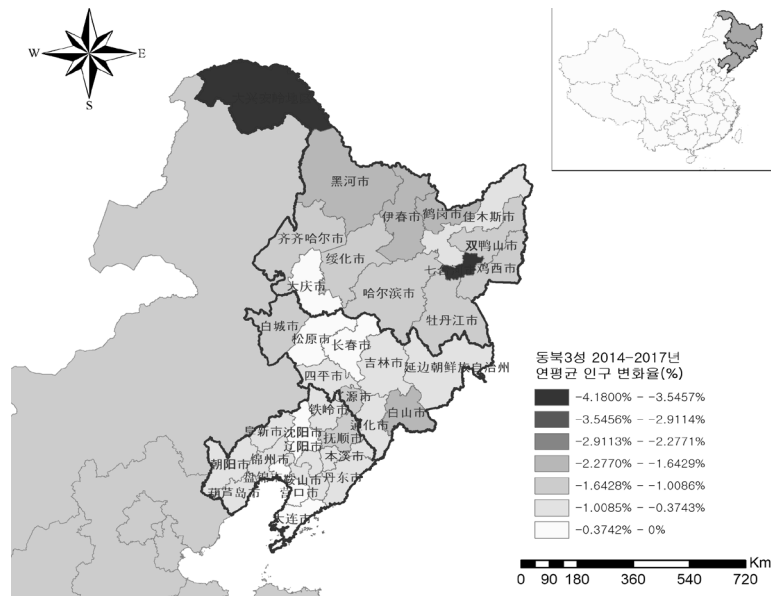
<그림 3> 최근 3년 간(2014~2017년) 중국 지급시 인구 변화율 추이
자료: 각 성별 통계연감(2015~2018)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자 작성.

II. 중국 동북3성 인구 감소 현황

- 최근 동북3성 지역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헤이룽장성이 그 속도가 가장 빠르다.

최근 3년 간 헤이룽장성에서는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다싱안링시(大興安嶺市, -4.18%), 치타이허시(七台河市, -3.77%), 이춘시(伊春市, -1.94%), 허강시(鶴崗市, -1.94%), 헤이허시(黑河市, -1.84%) 등이 비교적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린성에서는 바이산시(白山市, -1.82%), 바이청시(白城市, -1.16%), 지

린시(吉林市, -0.97%), 쓰핑시(四平市, -0.79%), 옌볜자치주(延边自治州, -0.69%) 등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랴오닝성에서도 다롄시(大连市)와 선양시(沈阳市)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인구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최근 3년 간(2014~2017년) 동북3성 지급시 인구 변화율 추이

자료: 각 성별 통계연감(2015~2018) 데이터를 기반으로 필자 작성.

-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들은 대부분 동북3성에 위치한 중소도시들이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급시는 모두 26개 도시로, 그 중 헤이룽장성(8개 도시), 지린성(7개 도시), 랴오닝성(6개 도시) 등 동북3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 밖에 쓰촨성(3개 도시), 네이멍구(1개 도시), 산시성(1개 도시) 등 서부 지역의 일부 도시에서도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표 1> 중국 최근 3년 연속 인구 감소 도시 중 동북 3성 도시

성	도시명	2015년 인구 감소 (만 명)	2016년 인구 감소 (만 명)	2017년 인구 감소 (만 명)	3년 합계 인구 감소 (만 명)	인구 감소율
쓰촨성(四川省)	바중시(巴中市)	-7.1	-3.58	-4.52	-15.2	-4%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쑤이화시(绥化市)	-3.0	-4.7	-5.5	-13.2	-2%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치치하얼시(齐齐哈尔市)	-3.8	-3.81	-5.39	-13.0	-2%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치타이허시(七台河市)	-3.8	-5.09	-3.11	-12	-13%
헤이룽장성(黑龙江省)	헤이허시(黑河市)	-1.0	-2.5	-5	-8.5	-5%
지린성(吉林省)	지린시(吉林市)	-1.4	-1.46	-4.24	-7.1	-2%
쓰촨성(四川省)	네파장시(内江市)	-0.8	-5.57	-0.43	-6.8	-3%
지린성(吉林省)	바이청시(白城市)	-1.3	-1.13	-3.67	-6.1	-3%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지시시(鸡西市)	-3.0	-1.9	-0.7	-5.6	-3%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이춘시(伊春市)	-1.2	-0.81	-3.19	-5.2	-4%
쓰촨성(四川省)	광원시(广元市)	-0.1	-4.79	-0.31	-5.2	-2%
지린성(吉林省)	바이산시(白山市)	-0.8	-0.93	-3.37	-5.1	-4%
지린성(吉林省)	송원시(松原市)	-4.5	-0.43	-0.07	-5.0	-2%
헤이룽장성(黑龙江省)	쌍야산시(双鸭山市)	-0.8	-1.57	-2.43	-4.8	-3%
지린성(吉林省)	쓰핑시(四平市)	-0.3	-1.69	-2.41	-4.4	-1%
산시성(陕西省)	안강시(安康市)	-2.1	-1.4	-0.8	-4.3	-1%
랴오닝성(辽宁省)	진저우시(锦州市)	-0.6	-2.74	-0.56	-3.9	-1%
헤이룽장성(黑龙江省)	허강시(鹤岗市)	-0.8	-1.39	-1.61	-3.8	-4%
랴오닝성(辽宁省)	안산시(鞍山市)	-1.6	-2.15	-0.05	-3.8	-1%
랴오닝성(辽宁省)	푸순시(抚顺市)	-0.6	-1.64	-0.76	-3.0	-1%
랴오닝성(辽宁省)	번시시(本溪市)	-0.3	-0.79	-1.21	-2.3	-2%
지린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	-0.1	-1.1	-1.1	-2.3	-1%
네파멍구(内蒙古)	통랴오시(通辽市)	-1.8	-0.03	-0.37	-2.2	-1%
랴오닝성(辽宁省)	푸신시(阜新市)	-0.1	-1.53	-0.47	-2.1	-1%
지린성(吉林省)	랴오원시(辽源市)	-0.1	-1.0	-0.8	-1.9	-2%
랴오닝성(辽宁省)	단둥시(丹东市)	-0.2	-1.35	-0.15	-1.7	-1%

주: 인구감소율=최근 3년 합계 인구 감소/2014년 총인구
자료 출처: 중국도시통계연감2014-2017.

● 중국 중소도시에서 나타나는 도시 수축 유형은 크게 ▲자원고갈형 ▲산업구조 변화형 ▲지리접근성 부족형 ▲대도시 유출형 등이 있다.

이 중 동북지역에서는 주로 대도시 유출형을 제외한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원고갈형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석탄 기지의 쇠락으로 도시 수축을 겪고 있는 헤이룽장성의 허강시(鹤岗市), 지시시(鸡西市), 쌍야산시(双鸭山市), 치타이허시(七台河市) 등이 있으며, 임업 자원의 고갈로 인해 지역 기반산업을 잃어버린 이춘시(伊春市) 등이 있다.

산업구조 변화형 도시는 대표적으로 랴오닝성의 안산시(鞍山市)와 번시시(本溪市) 등이 있는데, 이 두 도시는 1950년대 신중국 설립 당시부터 중국 최대의 철강 산업 중심지였으나, 노후화된 공장 및 글로벌 시장의 둔화 등의 원인으로 기반 산업이 쇠퇴한 경우이다.

지리접근성 부족형 도시는 대표적으로 헤이룽장성의 치치하얼시(齐齐哈尔市)와 다싱안링시(大兴安岭市)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중국 가장 변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로서, 헤이룽장성 성도(省会)인 하얼빈시와의 거리도 상당히 멀다.⁵⁾

Ⅲ. 주요 중소도시 인구감소 대응 사례

- 중국에서는 도시 축소 현상에 대해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오히려 도시 공간의 효율적 재배치라는 점에서 기회라고 볼 수도 있다고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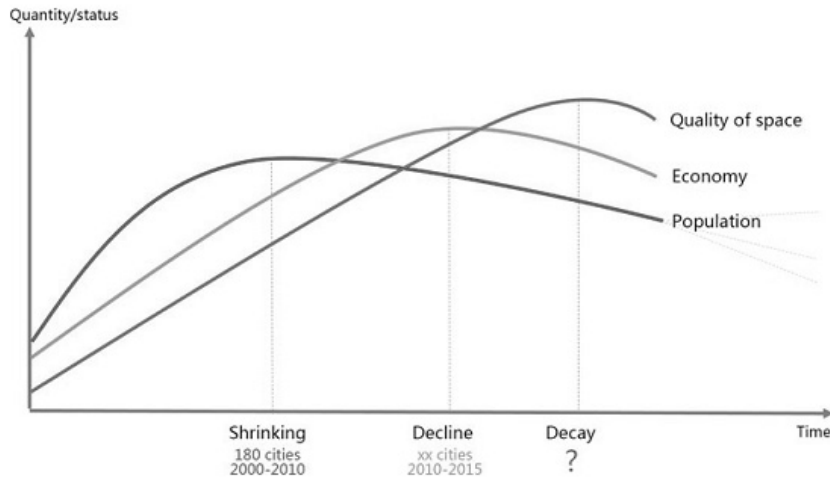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首都经贸大学)의 우캉(吴康) 교수는 “수축형 도시가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화 전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전통적 관점에서의 성장 혹은 확장의 개념에서 도시 공간의 체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도시의 수축 개념을 재정립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9년 출간된 『중국의 수축형 도시들: 도시화의 이면(Shrinking Cities in China: The Other Facet of Urbanization)』에서는 현재 중국의 도시 축소는 인구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경제성장이 점차 둔화되는 단계에 있으며, 도시 공간의 효율성은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단계라고 주장하였다.

-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수축형 중소도시의 대응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소도시 축소 사례 및 대응에 대해 대표적으로 동북지역 헤이룽장성의 이춘시와 치치하얼시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5) 치치하얼시에서 하얼빈시까지의 고속열차를 탑승해도 최소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중국 최북단에 위치한 다싱안링시는 하얼빈시까지 최소 10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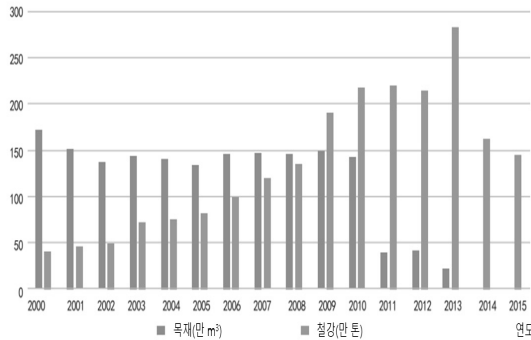
<그림 5> 도시 축소의 과정

자료: Ying Long, Shuqi Gao(2019) Fig.12.17 재인용.

1. 이춘시(伊春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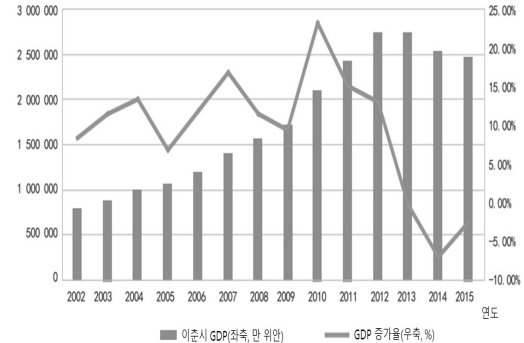
- 헤이룽장성에 위치한 이춘시는 2016년 광저우시에서 거행된 제1차 수축도시 학술 세미나(The first conference on Shrinking Cities in China)⁶⁾에서 중국 수축형 중소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었다.
- 이춘시는 도시의 단일 기반 산업의 쇠퇴와 함께 도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 기반 또한 흔들리고 있는 도시이다.
이춘시는 신중국 설립 이후부터 풍부한 목재를 바탕으로 한 임업 산업이 주류 산업이었지만, 계획경제 하의 목재의 지속적인 과잉생산과 목재의 점진적인 고갈로 인해 2011년부터 전면적으로 목재의 상업적인 벌목이 중단되었다. 이 후 철강생산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이 잠시 빠르게 성장하는 듯 하였으나, 글로벌 시장 수요의 둔화 등의 요인으로 철강 산업 또한 빠르게 쇠퇴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인구가 126만에서 114만으로 약 12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춘시의 GDP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6) 중국 수축도시 학술세미나는 베이징도시연구실(BCL)이 주관하여 2016년부터 매년 '도시수축'을 주제로 개최하는 학술세미나로 2016년 제1차 세미나(광저우시), 2017년 제2차(창사시), 2018년 제3차(베이징시) 회의가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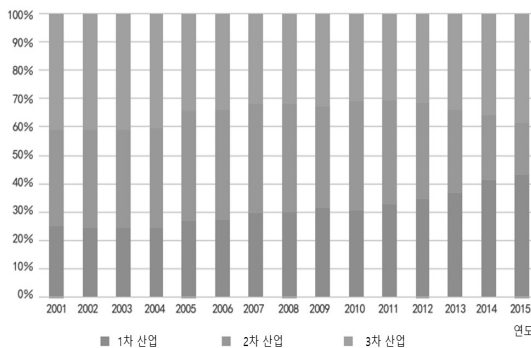
<그림 6> 이춘시 목재 생산 및 철강 생산량 변화(2000~2015년)

자료: 高舒琦·龙瀛(2017)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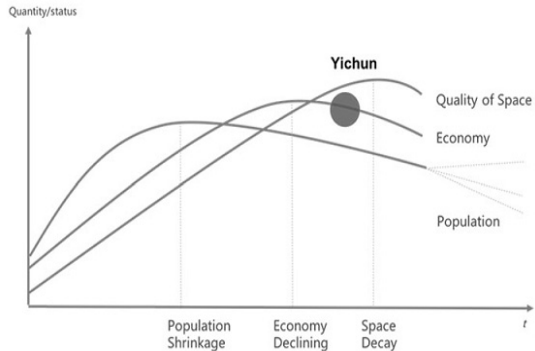
<그림 6> 이춘시 목재 생산 및 철강 생산량 변화(2000~2015년)

자료: 高舒琦·龙瀛(2017) 재인용.



<그림 8> 이춘시 산업구조의 변화(2001~2015년)

자료: 高舒琦·龙瀛(2017) 재인용.



<그림 9> 이춘시의 도시 축소 단계

자료: Ying Long, Shuqi Gao(2019) Fig.12.22 재인용.

- 이에 따라 최근 이춘시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임업'을 재차 육성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고부가가치 1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 축소 현상을 극복하려 하고 있다.

헤이룽장성 정부와 이춘시 정부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임하경제(林下经济) 부양'을 천명하였다. 임하경제는 건전한 임업 기반의 연계 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벌목 및 목재 운송, 목재가공 등에 종사하던 마을 주민들이 버섯류, 조류 양식 등 고부가가치 농산업으로 대거 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춘시의 산업구조는 2010년대 이후 빠르게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하지만 이춘의 사례는 여전히 확장 위주의 도시 성장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둔화 추세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최초 『이춘시 도시 총체 계획(2001-2020)』에서는 2020년까지 인구를 140만으로 예측하고 있었으나, 2017년 9월 국무원은 계획을 수정하여 2020년까지 115~120만 명으로 인구 예

축치를 수정, 재차 비준하였다. 이는 인구 감소의 현황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도시 인구의 확장을 가정한 계획 내용을 견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치치하얼시(齐齐哈尔市)

- 헤이룽장성의 서북단에 위치하는 치치하얼시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도시이지만, 경제는 여전히 비교적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다.

치치하얼시는 도심지역 연말 총인구가 2006년 144만 2200명에서 처음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36만 59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경제적으로는 축소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2014년 지역총생산(GRDP)이 전년대비 5.2%로 여전히 성장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 치치하얼시의 경우, 도시 축소에 비교적 적절히 적응하고 그에 따른 도시 공간 효율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된다.

베이징도시연구실(BCL)에서는 치치하얼시 도심 지역이 도로 및 건축물 등의 공간 배치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⁷⁾ 이들은 도로, 보행로, 건축물, 개방공간 등의 측면에서 객관, 주관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해 평가한 결과,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공간적 변화가 대부분 효율적으로 변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도로, 보행로, 건축물 신축 등의 측면에서 도심지역 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소규모 상점 등은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활 및 편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 건축물, 상점 등의 환경 개선은 실질적인 도시 체계의 효율성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뜻한다.

- 하지만 치치하얼시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의 둔화 또는 쇠락의 양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 도시 공간구조의 효율화만으로 도시 축소를 명확히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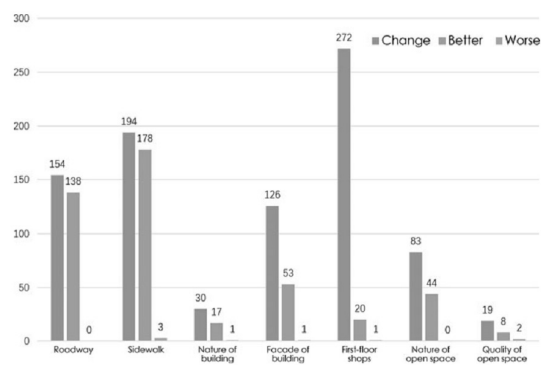
〈그림 12〉와 같이 치치하얼시는 여전히 '인구 감소-경제 성장-공간 효율화'라는 도시 축소의 초기 과정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몇 년간의 도심 공간 효율화가 장기적으로 도시 축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치치하얼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베이징도시연구실(BCL) 연구진은 도심 공간의 효율화 뿐만 아니라 지역 특색을 살린 경제 기반 산업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하였다.

7) BCL의 리즈(李智) 및 룽잉(龙瀛) 연구원은 치치하얼시 도심 지역의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텐센트 지도(腾讯地图) 도로 상 3,267개 좌표의 로드뷰 사진 9,728개를 분석하여 공간 구조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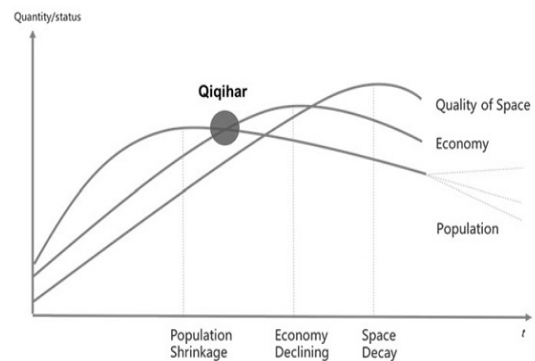
<그림 10> 치치하얼시의 도시 공간 효율화 과정(좌->우)

자료: 李智·龙瀛(2017) 그림 일부 재인용.



<그림 11> 치치하얼시의 도시 공간 변화 및 평가표

자료: 李智·龙瀛(2017) 그림5 재인용.



<그림 12> 치치하얼시의 도시 축소 단계

자료: Ying Long, Shuqi Gao(2019) Fig.12.19 재인용.

Ⅳ. 종합 및 시사점

- [내용 종합] 중국 주요 중소도시들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도시 축소 현상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2019년 들어 최초로 발개위 공식 문건에서 '수축형 도시'를 언급하였으며, 성장 위주의 도시 발전 정책을 재고하여 효율적인 중소도시 발전의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 수축형 도시에 관한 대다수 중국의 전문가들은 도시 축소에 대해 적응하면서도 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작지만 정교하고, 작지만 아름다운(小而精, 小而美) 도시'로의 발전을 공통의 지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재경대학(上海财经大学) 장쉐량(张学良) 교수는 도시 수축의 개념을 통해 다른 지역과의 협력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차원에서 전체의 이익과 실질적인 효율성의 제고를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중국 중소도시 인구 감소 현상은 동북3성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헤이룽장성 이춘시와 치치하얼시의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춘시의 경우, 도시 단일 기반 산업의 쇠퇴로 인한 인구 감소가 나타난 도시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다 건강한 산업의 부양을 주된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치치하얼시의 경우에는 인구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 성장의 둔화 또는 쇠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주로 도시 공간 구조의 효율화가 특징이다.
- 이러한 이춘시와 치치하얼시의 도시 축소 대응 사례는 단기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부분도 있으나, 여전히 한계점도 명확히 존재한다.
이춘시의 경우에는 도시의 특색을 살린 특화 산업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성과는 눈에 띄나, 여전히 도시 확장 및 성장주의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치치하얼시의 경우에는 도시 공간의 효율적 발전 이면에 특색있는 산업 및 경제 기반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 [충남에의 시사점]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미 도시 축소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이 때, 충남은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성과 및 국제 연계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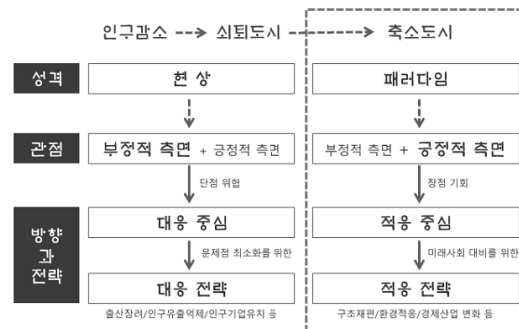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축소도시에 대한 연구가 이미 201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충남에서는 2017년 이미 도시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논의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일본과 도시 축소에 대한 전략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 경험이 있다.

- 중국에서도 도시 축소 현상에 대해 긍정적 측면을 더욱 부각하고, 대응보다는 적응 위주의 전략을 채택하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남의 연구 경험과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 2017년 10월 충남연구원 주최 '지방도시 인구감소 대응 정책에 대한 한일지방도시 국제세미나' 회의 장면

자료: 충남연구원 홈페이지.



<그림 14> 충남연구원 제안 축소도시 성격 및 전략 방향

자료: 임준홍·오용준(2018) 그림6 재인용.

- 중국의 동북지역은 노후화된 산업 기반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도시 축소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지역이며, 이 주제에 대해 한국 또는 일본과 같이 선행된 경험을 축적한 국가와의 연계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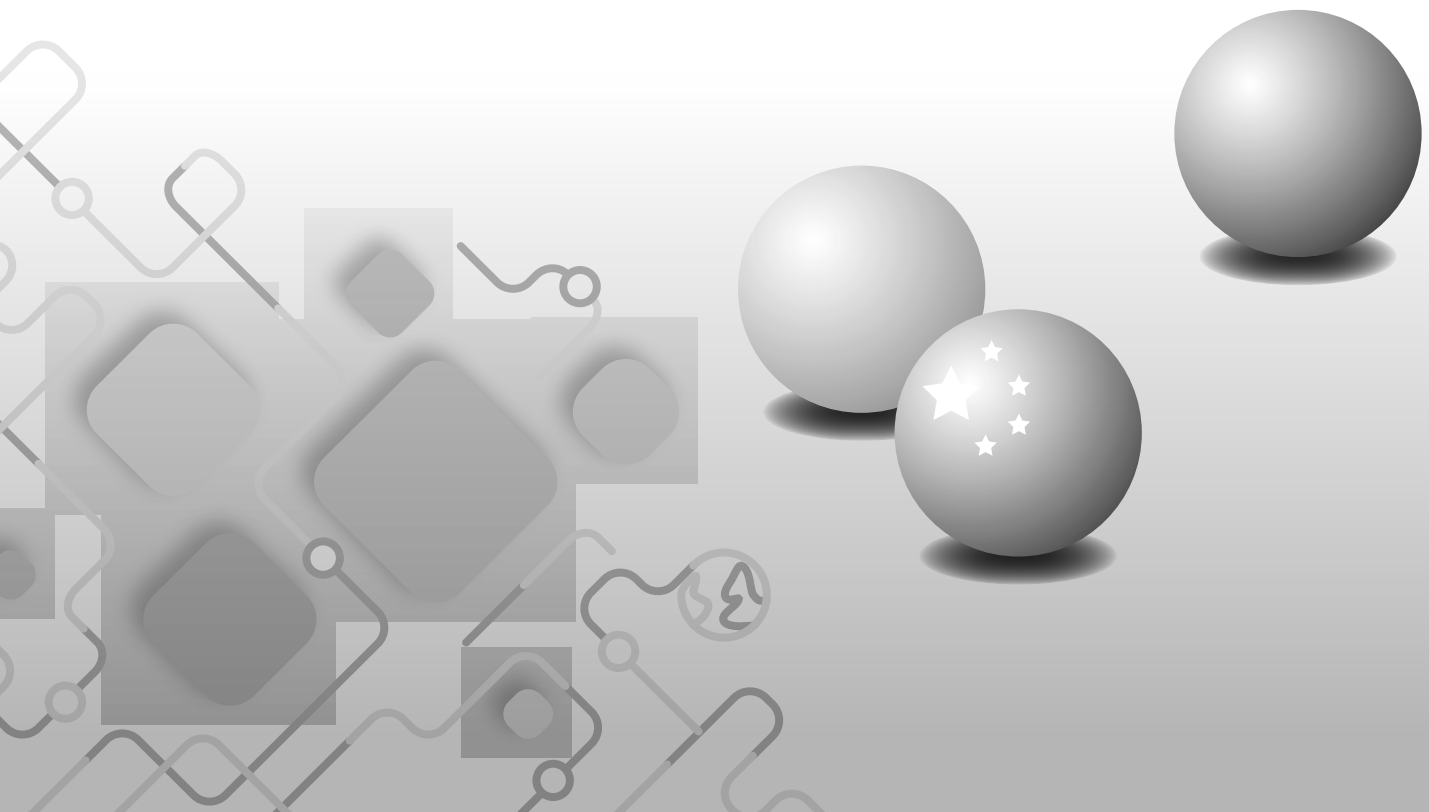
- Ying Long, Shuqi Gao(2019), Shrinking Cities in China: The Other Facet of Urbanization, 2019, Springer
- 임준홍·오용준(2018), 인구감소에 따른 충남의 도시축소 전략, 충남리포트 Vol.308. 충남연구원.
- 충남연구원, "인구감소 시대, 위기 아닌 기회로 삼아야", 2017. 충남연구원 보도자료.
- 北京城市研究室(Beijing City Lab)网站. <https://www.beijingscitylab.com/projects-1/15-shrinking-cities/>
- 李智·龙瀛(2017), 基于动态街景图片识别的收缩城市街道空间品质变化分析——以齐齐哈尔为例. 规划师, 2017(1): 21-25.
- 高舒琦·龙瀛(2017). 东北地区收缩城市的识别分析及规划应对. 规划师, 2017(1): 26-32.
- 朱振鑫·李畅(2019), 中国城市故事: 终将收缩甚至消失的四种城市, 如是金融研究院.
- 发改委首提“收缩型城市”哪些城市在收缩(全名单), 新浪财经, 2019-04-10.
- 首提“收缩型城市”, 中小城市如何应对, 大众日报, 2019-04-18.
- 伊春市凝心聚力推进林下经济又好又快发展, 伊春市农委, 2015-06-04.

중국 지방정부 정책 동향

중국 '특색 마을(特色小鎮)' 건설 동향

전춘복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1. 중국 ‘특색 마을’ 건설 배경과 경과

- 중국의 ‘특색 마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및 주택건축부가 전국범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성급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 ‘특색 마을(特色小镇)’은 행정구역상에 포함되지 않은 동네나 마을을 의미하며 소규모이지만 산업면에서는 특별한 함과 강한 시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을에 한 개 혹은 여러 개 유사한 기업들이 모여 지역의 산업을 육성·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특색 마을’ 조성사업이기도 하다. 첫 사업은 2016년 10월 주택건축부가 ‘제1차 중국특색마을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되었지만, 사실상 ‘특색 마을’이라는 용어는 2014년 저장성 항저우시 윈치(雲棲)지역을 놓고 불려지기 시작하였다.
 - 윈치는 항저우 시후(西湖)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는데 최근에는 저장성 특색 마을 발원지로 알려지고 있다. 2015년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조사단이 저장성 ‘특색 마을’건설에 대한 현지 탐방시 저장성 ‘특색 마을’사업을 놓고, 새로운 경제발전 체제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모델이라는 평가를 하였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시진핑 총서기가 저장성 ‘특색 마을’사업에 대해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항저우 윈치마을은 클라우드산업 중심으로 빅데이터 가공 등 산업 특징을 활용한 ‘공생, 공영, 공존’을 목표로 한다. 기존 ‘알리클라우드(阿裏雲) 개발자 대회’도 명칭을 ‘윈치대회’로 변경하고 2015년부터 윈치마을에 (주)알리바바클라우드를 이전하였다.



<그림 1> 윈치대회와 (주)알리바바클라우드

자료: 搜狐(www.sohu.com)

- 중앙정부의 연이은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2016년 10월과 2017년 7월 총 2차례에 걸쳐 ‘특색 마을’ 명단을 공개하였다. ‘특색 마을’ 선정요건은 지역 산업이 특별하고 강하며(特而強), 기능적

으로는 유기적 결합(有機合)을 이뤄내고, 작지만 아름다운(小而美) 외형과 새롭고 활력적인(新而活) 구조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국에 조성된 국가급 특색마을은 403개에 달한다. 성급 단위에서 추가로 조성된 특색마을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약 2,000여개 ‘특색 마을’이 조성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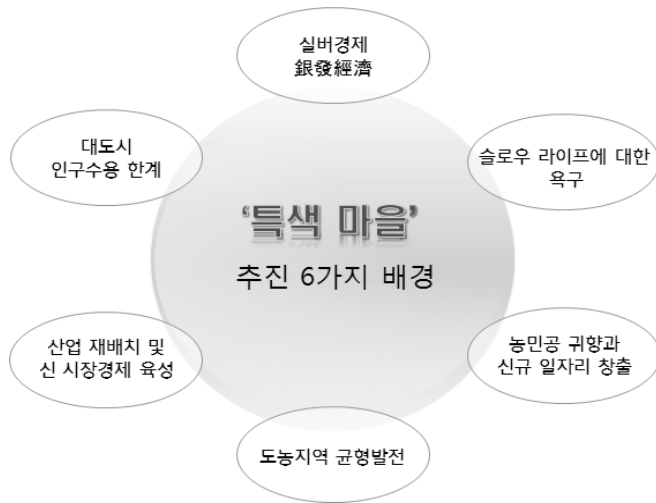
<표 1> 국가급 특색 마을 조성 경과

구분	시기	주관 기관	내용 및 범위
1차	2016.10.11	주택도시건설부	국가급 ‘특색 마을’ 127개 지정
2차	2017.08.22	주택도시건설부	국가급 ‘특색 마을’ 276개 지정
최종목표	2020년까지 전국에 국가급 ‘특색 마을’ 약 1000개 조성		

자료: 中國特色小鎮網(<http://www.chntsxz.cn>)

- 중국정부가 ‘특색 마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중국의 자체적인 몇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 우선, ‘실버경제(銀發經濟)’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약 3억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21%를 차지할 것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약 2억 명이나 달한다고 한다. 도시의 복잡한 교통, 탁한 공기를 떠나 인근의 자그만 하고 아름다운 마을에서 노후생활을 즐기는 것이 노인세대들의 욕망이기도 하다.
- 다음으로 대도시의 인구수용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2016년 베이징시 5개구는 이미 인구수용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그 외 다른 대도시들도 다를 바 없었다. 이러한 인구 팽창문제는 교통, 주거, 환경, 자원결핍 등 다양한 사회문제 즉 ‘대도시병’을 낳고 있다.
- 또 도시생활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었다. 바로 ‘특색 마을’이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안성맞춤인 셈이다.
- 특히, 도심밀집도가 높아가면서 지역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재배치 수요가 대두되고 있다. 도심의 교육, 과학기술 등 기반을 공유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도심에서 몇십 킬로 떨어진 도시 외곽지역을 선정해 ‘특색 마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 이어 농민공들의 귀향과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문제가 ‘특색 마을’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 마지막으로 도농지역의 균형발전이다. 특색 산업 보유지역과 소수민족 지역과 같이 특색 산업 보존 및 육성에 대한 요구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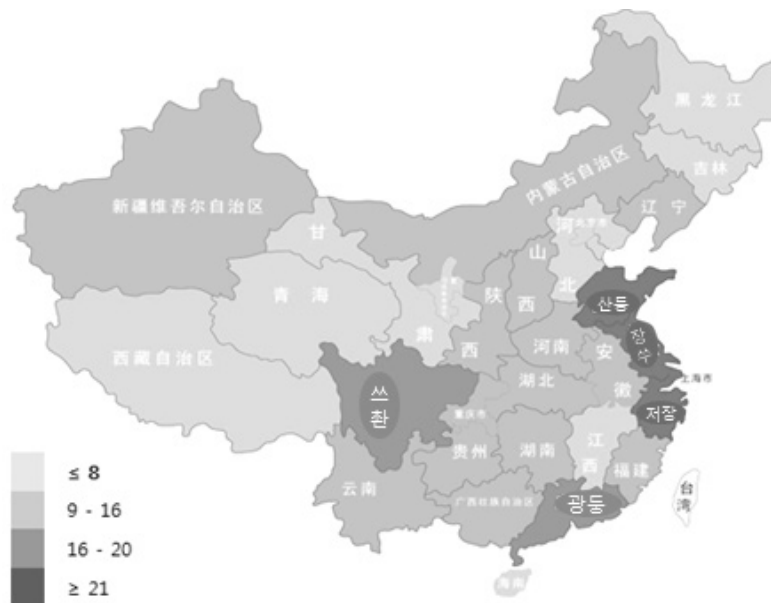
6가지 사회적 배경

1. 실버경제 대응
2. 대도시 인구수용 한계
3.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욕구
4. 산업의 재배치 및 신 시장경제 육성
5. 농민공의 귀향과 신규 일자리 창출
6. 도농지역 균형발전 촉진

<그림 2> '특색 마을'정책 추진 배경

2. 국가급 '특색 마을' 분포 특징

- 2016년 10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국가급 특색마을은 총 403개이다.
 - 성급 특색 마을 수도 979개나 달하며, 현급 단위에서도 특색 마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2,000여개에 달하는 특색 마을이 조성되고 있다.
- 1차와 2차에서 조성된 국가급 특색마을들은 주로 저장성, 장쑤성, 산둥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광둥성과 쓰촨성에도 특색 마을이 많이 조성된 편이다.
 - 저장성과 산둥성은 각각 23개 특색 마을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장쑤성은 22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광둥성과 쓰촨성은 20개씩 각각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 주요 특색마을의 특색 산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저장성의 경우는 정보화기술, 금융혁신, 첨단제조, 디자인설계 등 다양한 산업이 분포된 반면, 산둥성은 건강보건, 광둥성은 레포츠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윈난성은 약 20%가 문화관광마을로 조성되었다.



<그림 3> 특색마을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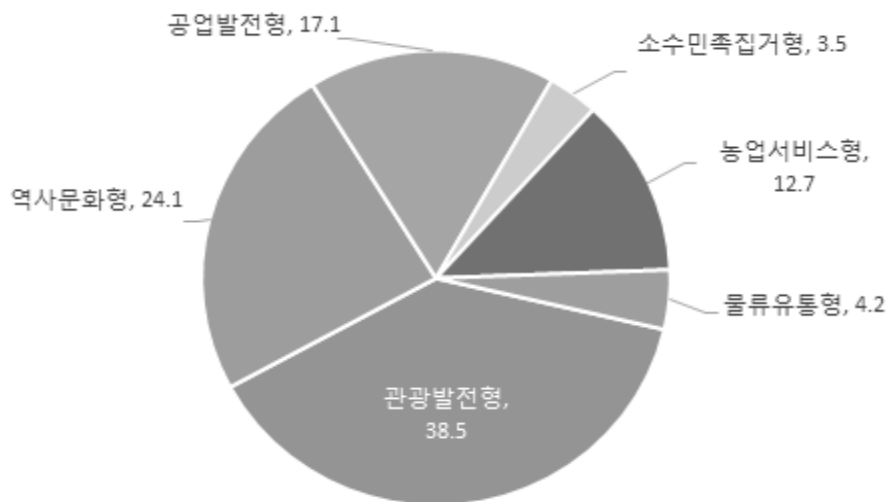
자료 : 搜狐(www.sohu.com)

<표 2> 국가급 특색 마을의 지역별 분포

구분		1차	2차	계	구분		1차	2차	계
화북	베이징시	3	4	7	서남	충칭시	4	9	13
	톈진시	2	3	5		쓰촨성	7	13	20
	허베이성	4	8	12		귀저우성	5	10	15
	산시성	3	9	12		윈난성	3	10	13
	네이멍구	3	9	12		티벳	2	5	7
화동	상하이	3	6	9	서북	싼시성	5	9	14
	장쑤성	7	15	22		간수성	3	5	8
	저장성	8	15	23		칭하이성	2	4	6
	안후이성	5	10	15		닝샤자치구	2	5	7
	푸젠성	5	9	14		신장자치구	3	7	10
	장시성	4	8	12		신장생산건설단	1	3	4
	산둥성	7	15	22	중남	허난성	4	11	15
동북	랴오닝성	4	9	13		후베이성	5	11	16
	지린성	3	6	9		후난성	5	11	16
	헤이룽장성	3	8	11		광둥성	6	14	20
						광시자치구	4	10	14
						하이난성	2	5	7

자료 : 中國特色小鎮網(<http://www.chntsxz.cn>)

- 1, 2차에서 지정된 특색마을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관광발전형, 역사문화형, 공업발전형, 농업서비스형, 물류유통형, 소수민족집거형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 즉 관광발전형, 역사문화형, 소수민족집거형 등 모델은 대체로 지역관광과 연관된 부분이 큰데 이는 ‘청산녹수는 금산은산이다(青山綠水就是金山銀山)’라는 시진핑 주석의 말에서도 표현되었듯이 지역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림 4> 특색 마을 산업 분포

자료 : 中國產業信息網

3. ‘특색 마을’ 조성 사례

3.1 저장성 ‘특색 마을’

마을 조성 경과 및 특징

- 저장성은 전국에서 특색 마을 사업의 발원지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향력이 큰 지역

으로 알려져 있다. 항저우시의 윈치마을이 바로 그 발원지이며 저장성의 대표적인 특색 마을이다.

- 저장성의 ‘특색 마을’ 사업은 2015년 『저장성정부공작보고』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같은 해 6월에 망상마을(夢想小鎮)을 포함한 총 37개의 성급특색마을 명단 공개를 통해 저장성 ‘특색 마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추가로 2016년 1월에 42개의 ‘특색 마을’ 명단을 공개함으로 인해 2019년 1분기까지 총 135개의 ‘특색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 저장성은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국가급 ‘특색 마을’ 명단에서 총 23개나 지정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정된 지방정부이다.
- 성정부차원에서는 2015년에 「특색마을규획과 건설에 대한 지도의견(關於加快特色小鎮規劃建設的指導意見)」을 통해 3년 동안 성내에 100여개의 ‘특색 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 저장성정부가 초기 조성한 37개 ‘특색 마을’은 3,300여개 기업을 유치하여 총 480억 위안의 투자를 달성시키는 좋은 성과도 거두었다.



특색마을 분포 지역

- 항저우: 18개
- 닝보: 7개
- 윈저우: 5개
- 싸오싱: 5개
- 후저우: 6개
- 자싱: 9개
- 진화: 6개
- 형저우: 5개
- 저우산: 3개
- 타이저우: 5개
- 리쉬이: 8개

<그림 5> 저장성 성급 ‘특색 마을’ 지도

자료: 浙江特色小鎮官網(tsxz.zjol.com.cn)

- 저장성은 ‘특색 마을’ 조성 사업 촉진을 위해 저장성발전개혁위원회와 저장성 인터넷 뉴스 사이트(浙江在線)가 공동으로 ‘저장성특색마을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수는 일반적인 통계지수 편집 원리에 따라 ‘특색 마을’별 당기 건설상황 및 민정데이터를 반영하여 편성한 단계별 종합평가지수이다.

- ‘특색 마을’ 순위는 매달 발표하고 전체 저장성 ‘특색 마을’ 총 지수는 분기별로 발표한다. 이를 통해 ‘특색 마을’ 사업공정률과 성과 및 동향을 제시한다
 - 저장성은 2017년 3분기에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다. 2019년 1분기에 발표한 지수순위에서 저장성 시(현)급단위에서는 항저우시가 1위, 전체 특색 마을 중에서는 항저우시 위항명상마을(余杭夢想小鎮)이 1위를 하였다.



<그림 6> 저장성 ‘특색 마을’ 지수

자료: 浙江特色小鎮官網(tsxz.zjol.com.cn)

- 저장성의 대표적인 ‘특색 마을’인 명상마을은 면적이 3km² 밖에 달하지 않지만 아주 활발하게 청년창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명상마을은 2015년 저장성정부의 첫 ‘특색 마을 조성 명단’에 오르면서 약 3년간에 걸쳐 건설해왔다. 이 마을은 천사마을, 네트워크마을, 상업중심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 네트워크마을은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설계, 정보화서비스,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터 그래픽 등 분야 창업자들을 중점 지원한다.
 - 천사마을은 투자기금, 지정관리기관, 과학기술과 네트워크 금융 분야의 입점으로 전반적인 금융서비스 체계를 구성해 금융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 지난 3년간의 노력 하에 명상마을에는 12,900여명의 창업인재, 1,341개 네트워크 기반의 창업 아이템이 모여들었고 그 중 136개 창업아이템은 백만 위안 이상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마을 전체로 놓고 보면 총 94.25억 위안의 투자금을 확보하였다.



마을 전경



청년창업센터(네트워크마을)



금융센터(천사마을)



창업거리(상업중심지)

<그림 7> 명상마을 사진들

자료: 浙江特色小镇官网(tsxz.zjol.com.cn)

주요활동과 실적

- 명상마을에서는 마을조성과 아울러 청년창업관련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 2016년에는 50여개 국가에서 온 청년들이 명상마을에 다녀가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행사는 저장성교육청, 저장성인민정부신문판공실, 저장성인민정부외사교무판공실, 저장방송국, 저장공업대학, 저장성미래과학성 등이 함께 추진하였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가 출신 약 2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행사에서 개최한 포럼에서는 창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정책, 시장개척, 자원공급 등 면에서 제공되는 유리한 조건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참석 외국인 유학생들의 심층 논의가 이뤄졌다.



<그림 8> 세계 50개국 청년들의 명상마을 탐방

자료: 余杭新聞網(www.eyh.cn)

- 2017년에는 명상마을 입점기업인 평차오창업공간(蜂巢眾創空間)이 베이징 중관춘창업거리(中關村創業大街)와 전략적 합작관계를 맺었다. 평차오회사는 아리바바 창업멤버들이 명상마을에서 설립한 창업서비스플랫폼이고 중관춘창업거리 운영사는 칭화대학 산업자원을 이용해 창업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합작은 앞으로 창업분야에서 인재 및 자본서비스를 탐색하는 신사업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며 새로운 창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그림 9> 중관춘창업거리와 평차오 전략적 협약

자료: 余杭新聞網(www.eyh.cn)

- 2018년 12월에 ‘프랑스촌’ 혁신교류센터가 가동에 들어갔는데 이 센터는 명상마을 창업 거리에 위치한다. 센터 1층에는 ‘프랑스촌’ 설계이념 등을 진열하고 주로 전시관람, 세미나, 교육 장소로 활용된다. 2층은 ‘프랑스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며 중국과 프랑스의 과학 기술 혁신협작모델을 전시하고 있다. ‘프랑스촌’ 조성사업은 2017년 명상마을에서 개최된 ‘중·프랑스 기업혁신사업 합작 협의의식’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중·프랑스 기업혁신사업 합작 협의 의식(2017)



명상마을에 조성된 ‘프랑스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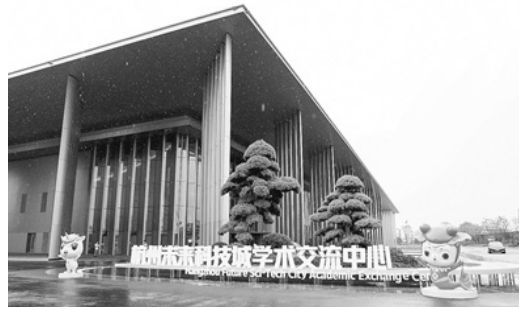
<그림 10> 명상마을에 ‘프랑스촌’ 혁신교류센터 조성

자료: 余杭新聞網(www.eyh.cn)

- 2019년 전국 ‘대중창업 만중혁신 활동주(全國大眾創業萬眾創新活動周)’ 행사가 항저우 명상마을에서 6월 13-19일까지 ‘쌍창활력을 모아 발전동력으로 격동시키자(匯聚雙創活力, 澎湃發展動力)’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다.
- 2015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해온 이번 행사는 베이징, 선전, 상하이, 청두 다음으로 항저우 명상마을에서 제5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170여개 혁신적인 창업아이템이 7개 분야에 걸쳐 전시되었고 16개의 정부기관 주관행사와 270차례의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 14일에 개최된 ‘국제혁신커뮤니티(國際創新共同體)’ 조성의식에서는 국제창업자동호회를 정식 설립하여 우선, 산업의 혁신성장 제고, 모든 요소의 결합촉진 및 걸림돌 제거에 초점을 맞추어 항저우 지역 창업자들이 국제무대에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명상마을 입구에 설치된 '대중창업 만중혁신' 조형물



미래과학성학술교류센터(未來科技城學術交流中心)



'국제창업혁신 커뮤니티' 조성 의식



행사에서 발표하는 리커창 국무총리

<그림 11> 2019 '대중창업 만중혁신 활동주' 주요 사진들

자료: 浙江特色小镇官網(tsxz.zjol.com.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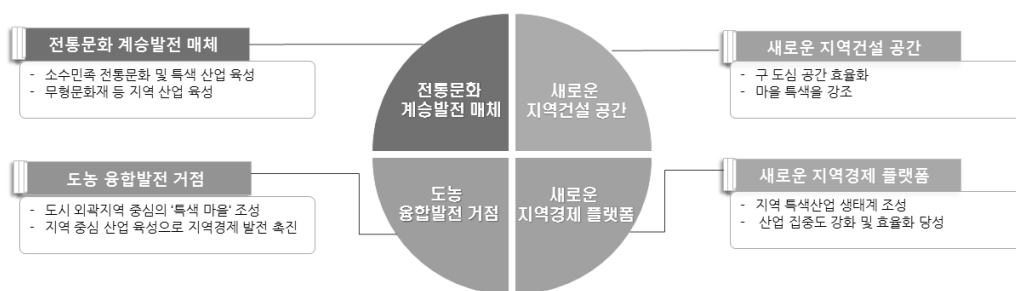
3.2 저장성정부의 지원정책

- 항저우정부에서는 명상마을 뿐만 아니라 항저우 전역에 걸쳐 창업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 디딤돌 역할 : '쌍창(雙創: 대중창업, 만중혁신의 줄임말)'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3년에 최고 600만 위안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3년에 최고 150만 위안의 사무실임차보조금 지급, 최고 150만 위안의 천사명상기금 조성과 우수 사업아이템에 최고 1억 위안의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 '알짜배기' 정책의 실시로 국내 최고기업과 유명한 글로벌기업들에게 입점을 요청하고 있다.
 - 촉매제 역할 : 항저우정부는 데이터경제의 발전과 '쌍창'사업을 중점육성사업으로 정하고 항저우시 예산으로 각각 1억 위안과 1,500만 위안을 들여 성급 및 시급제조업혁신센터(制造业创新中心)를 건설하였다.

- 견인차 역할 : 올해 4월 항저우정부는 ‘5G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5G시대 선도구를 건설해 기술혁신, 산업발전, 인재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추진 강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의약이나 스마트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4. ‘특색 마을’ 건설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 ‘특색 마을’은 소규모 동네에 한 개 혹은 여러개 기업들이 모여서 산업군을 형성해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어나가는 신생산물이다.
 - 전문가들은 중국 ‘특색 마을’은 지역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 신형 도농 건설의 새로운 공간, 도농지역의 융합발전을 이끄는 거점,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매체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주택건설부에 의하면 ‘특색 마을’ 하나를 건설하는데 평균적으로 투자비용이 5~60억 위안(한화 8,500억~1조)이 들고 그 중 30~50%가 기반시설 건설에 투자된다고 한다. 따라서 국내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림 12> ‘특색 마을’의 주요 역할과 기능

- 3년 동안 추진해온 ‘특색 마을’조성 사업은 적지 않은 지역에 우수한 마을을 만들어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수 사례지역은 후생 마을에 모범이 되고 정부가 표준 지침을 작성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 그러나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다수의 유명무실한 마을도 만들어냈다. 특히, 성급 ‘특색 마을’의 경우 초기에 무차별하게 지정하면서 마을과 산업이 융합되지 못하고 지역적 특색이 강하지 못해 성과가 미미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 따라서 2018년 9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주거전용지 비율이 높고 부동산 투기 경향이 있는 마을, 정부 종합 부채가 100%에 달하는 고위험 마을, 자연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부적격처리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보고서 :

《中國特色小(城)鎮2018年發展指數報告》

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 :

杭州市人民政府, <http://www.hangzhou.gov.cn>
 夢想小鎮 - 杭州余杭政府门户网站, www.yuhang.gov.cn/yhly
 夢想小鎮, www.dream-town.cn
 前瞻产业研究院, www.qianzhan.com

기사자료 인터넷 사이트 주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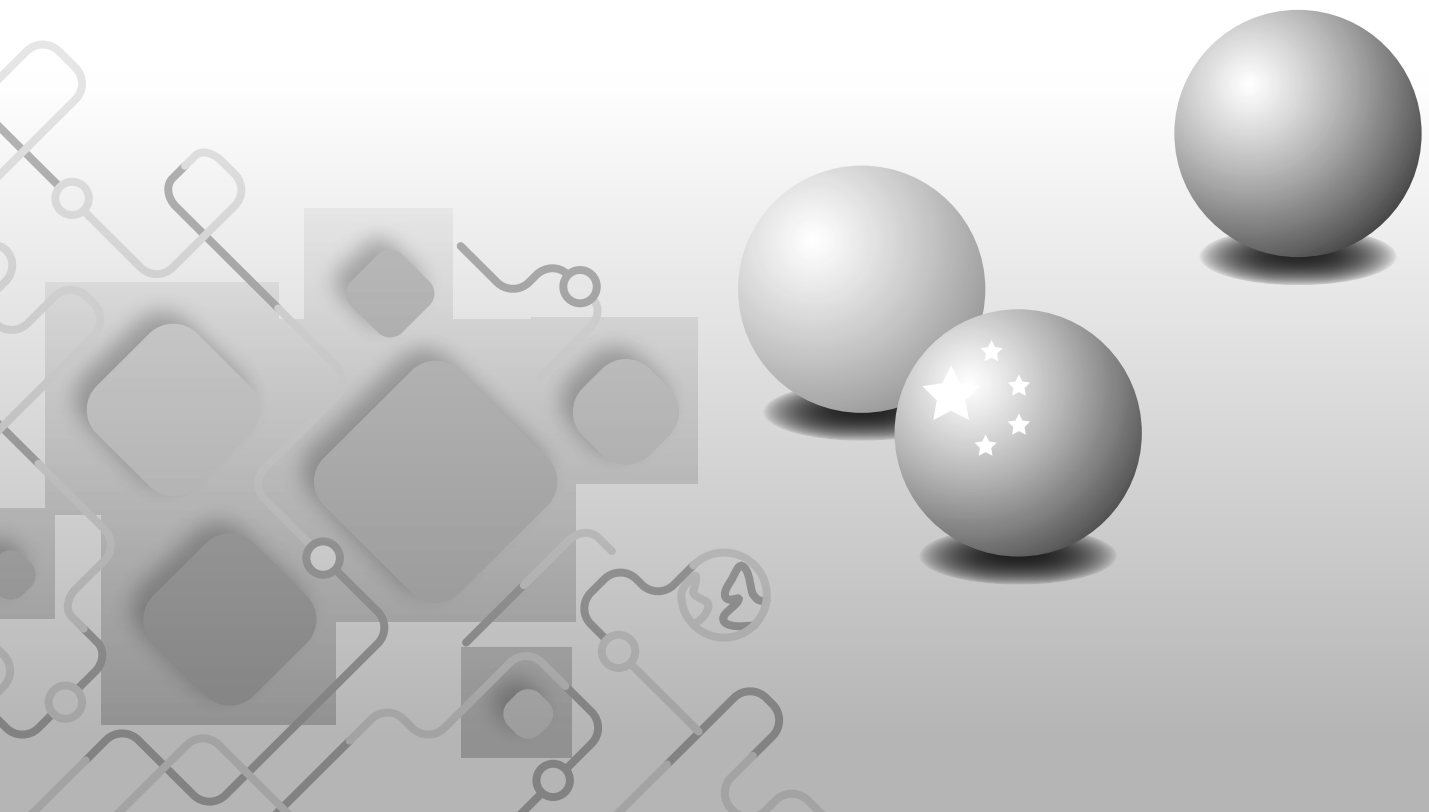
浙江特色小镇建设三周年特别报道③- 余杭梦想小镇: 让梦想照亮现实
http://tsxz.zjol.com.cn/ycnews/201803/t20180309_6757163.shtml
 杭州成立国际创业者俱乐部 推动“国际创新共同体”建设
https://2019.hangzhou.com.cn/content/content_7211019.htm
 “世界青年看中国梦”-全球50国青年走进杭州梦想小镇
http://www.eyh.cn/class/class_2399/Articles/395536.html
 梦想小镇这家众创空间成功牵手中关村创业大街, (검색일 : 06. 10)
http://www.eyh.cn/class/class_2399/Articles/418475.html
 再揽4个大项目 打造“梦想小镇法国村”
<https://www.kan3721.com/news/show-7889.html>
 “法国村”项目在杭州梦想小镇正式启动
<http://wemedia.ifeng.com/93010563/wemedia.shtml>
 政策红利激发杭州“双创”活力
https://2019.hangzhou.com.cn/content/content_7209924.htm



9. 공자의 영정이 모셔져있는 논산 노성 궐리사(關里祠)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공자의 영정을 봉안한 영당, 궐리사

충남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 294번지에는 공자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궐리사가 있다. 궐리사라는 이름은 공자가 태어나고 자란 마을인 궐리촌에서 유래한 말로 공자의 유상(遺像)을 봉안한 영당(影堂)을 말한다. 궐리사는 일찍이 조선 숙종 13년(1687) 우암 송시열이 세우려고 했으나 2년 뒤 세상을 떠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숙종 42년(1716) 권상하, 김만준, 이건명 등의 제자가 현 위치에서 서쪽 방향으로 있는 노성산 아래에 궐리사를 세우고 이듬해 공자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정조 15년(1791)에는 송조 5현을 봉안하였고 순조 5년(1805)에는 관찰사 박윤수가 지금 있는 자리로 궐리사를 옮겼다.¹⁾ 지금의 건물은 중건 당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일명 춘추사(春秋祠)라고도 한다.

궐리사는 1978년 12월 30일 충청남도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노성유림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의 영당은 앞면 3칸, 옆면 2칸 규모이고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人)자 모양을 한 맞배지붕으로 꾸몄다. 건물은 사우·강당(絃誦堂),²⁾ 내·외삼문, 모성재(母聖齋)·관리사·문간채 등 모두 7동이 있다. 궐리사는 논산시 노성면 이외에도 강릉, 제천, 화성에도 있었으나 지금은 논산과 화성 두 곳에만 남아있는데 두 궐리사에는 차이가 있다. 숙종 때 세워진 노성 궐리사가 향촌의 사림을 배경으로 한 공자의 영당이라면 화성 궐리사는 국왕 정조에 의해서 세워진 영당이다.(이육, 2007)



<그림 1> 궐리사의 전경과 공자상(像)

자료: 논산시청 홈페이지

공자의 후손이 주도해 세운 궐리사

- 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노성궐리사
- 2) 현송당(絃誦堂)이란 비파 현(絃), 율 송(誦), 집 당(堂)으로 비파나 거문고 등 현을 치면서 글을 외우는 집이란 뜻으로, 즐겁게 음악도 하면서 글공부도 하는 강당이란 뜻이다.

원래 궐리사는 일반적으로 중국 곡부에 있는 공자의 사당을 가리킨다. 이곳은 향과와 달리 공자의 후손이 대대로 관리하고 제향을 주관하는 곳이다. 공자에 대한 제사는 애초 이곳에서 시작하였다. 남북조시대 태학에서 공자에 대한 제사가 거행되고 당대에 전국 향교의 문묘에 공자가 모셔진 이후에도 곡부 궐리사에서의 제사는 이어졌다. 그리고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이곳 궐리사와 공자 후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치주의를 표방하였다.(이육, 2007)

노성 궐리사의 창건에 관한 초기 자료인 『서원등록』이나 정호의 기록을 보면 궐리사 창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공자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자문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정호였으며 관상하와 송시열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궐리사와 관련하여 권상하가 등장한 가장 이른 자료는 1726년(영조2년) 11월 한원진이 윤계장(尹季章)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도 있다. 여기서 한원진은 권상하가 궐리사의 액호(額號)를 직접 썼으며 비문을 작성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비문의 내용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이육, 2007)

중국에서 직접 얻어온 공자의 유상(遺像)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숙종 43년(1717) 공징로(孔徵魯), 공사중(孔思中) 등이 재상 이경억(李慶億)을 따라가 공부자(孔夫子) 유상(遺像) 일체(一體)를 얻어왔고, 영조 34년(1785) 이제후(李濟厚) 등의 상서로 이때 가져온 공부자 유상 일체를 노성의 궐리사에 봉안했다고 한다. 이제후의 상서에 따르면, 니산현(尼山縣)에 니구산(尼丘山)이 있고 그 산 아래 궐리촌이 있는데 계미년 간에 이곳에 재상 권상하(權尙夏)가 당을 짓고 부자의 영상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노성의 유림에서는 이러한 선인들을 높이 받들고 가르침을 지켜나가기 위해 매년 음력 3월과 9월 초정일(初丁日: 그달의 처음으로 드는 丁字日)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궐리사에는 공자를 주벽으로 주자도 모시고 있다.



<그림 2> 현송당과 공자영정

자료: 논산시 블로그

증자(曾子)와 송조5현(宋朝五賢)의 영정도 함께 걸려있다.

궐리사 안으로 들어가면 정중앙에는 오래된 공자의 영정이 모셔져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더 큰 크기의 공자 영정 2점이 걸려있다. 그리고 다시 우측으로는 성국종성공증자(成國宗聖公曾子) 영정과 송조5현(宋朝五賢)의 영정이 걸려있다. 일반적으로 향교나 서원에는 공자의 위패가 모셔져있는데 궐리사에는 공자의 영정이, 그것도 3점이나 모셔져있다.

증자(曾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춘추시대 유학자로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하였다. 그의 가르침은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를 거쳐 맹자에게 전해져 유교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동양 5성(聖)의 한 사람으로 추앙되고 있다. 증자는 <효경>의 작자라고 전해지기도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한다.

증자의 사상은 <증자(曾子)> 18편 가운데 10편이 <대대례기(大戴禮記)>에 남아 전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효(孝)와 신(信)을 도덕행위의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공자보다 46세가 적은 증자는 유가의 최고 덕목인 인(仁)의 실천을 자신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도 효와 신을 중시했기 때문에 매사 아주 신중하고 근신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성리학에서도 효행을 예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효의 전형으로서 증자의 영정을 궐리사 내 공자 영정과 함께 모셔놓은 게 아닌가 싶다.



<그림 3> 궐리사 내 증자(좌)와 송조오현(우) 영정

자료: 논산시 블로그

봄, 가을 두 번 제향의식이 거행된다.³⁾

노성 궐리사에서는 음력 3월에는 춘향제, 9월에는 추향제가 초정일(初丁日)에 거행된다. 제향의식은 먼저 국가에 대한 경례로부터 시작되고 이어 봉행이 시작된다.

먼저 초헌관이 강신례를 올린 다음, 향과 포(布)를 공자 영정 앞에 올린다. 옷을 만드는 베를

3) 논산시 블로그: 옛 성현의 충절을 기리는 노성 궐리사 추향제

올리는 이유는 제자가 스승에게 올리는 최고의 감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이어 축관이 신에게 축원을 드리는 축문을 읽는다.

다음에는 아헌관이 술잔을 올리는 아헌례에 이어 종헌관이 술잔을 올리는 종헌례가 있다.

공자인 영정에 대한 제향의식을 마친 다음, 우측에 있는 성국종성공(成國宗聖公) 증자(曾子)와 송조오현(宋朝五賢) 영정에게도 술잔을 올리는 예가 이어진다.

제향을 마치고 노성 궐리사에 모신 공자, 증자, 송조오현의 높은 뜻을 받들고자 다 같이 큰절을 올린다.



<그림 4> 궐리사 추향제 집전 모습

자료: 논산시청 홈페이지

작은 공자의 마을, 노성. 기호유학의 메카로 자리하길

논산은 기호유학의 중심이다. 충청도가 ‘충절과 선비의 공장’, ‘양반의 고장’으로 불리는 것도 이러한 유학의 뿌리 때문이다. 조선시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세력도 논산을 중심으로 한 기호학파(畿湖學派)였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논산 출신이며 그의 문하에서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초려 이유태, 최명길, 신희 등 수 많은 인물이 배출되었다. 이처럼 논산에 인물이 많았던 것은 노성의 뿌리 깊은 유학의 역사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노성에는 공자가 태어난 마을 이름과 같은 궐리촌이 있었다고 하며 노성의 옛 이름인 니산(尼山), 니성(尼城)이 모두 공자와 관련한 이름이고 노성(魯城)이라는 지명 또한 공자와 관련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가히 우리나라 유학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노성에 ‘충청유교문화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노성에 충청유교문화원이 설립되는 것은 궐리사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충청유교문화원 설립은 지난 6월 18일에 시작됐으며 이후 2021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충청유교 문화 부흥을 위해 지난 10년 간 준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기호학파와 더불어 조선 유학의 쌍벽을 이뤘던 영남학파의 유교문화 진흥에 비하면 아직 초라한 수준이기 때문에 향후 충청유교문화원의 설립을

계기로 충남, 그리고 논산이 기호유학 부흥의 거점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그리고 ‘작은 공자의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오랜 유학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논산 노성의 꺾리사가 기호유학 부흥의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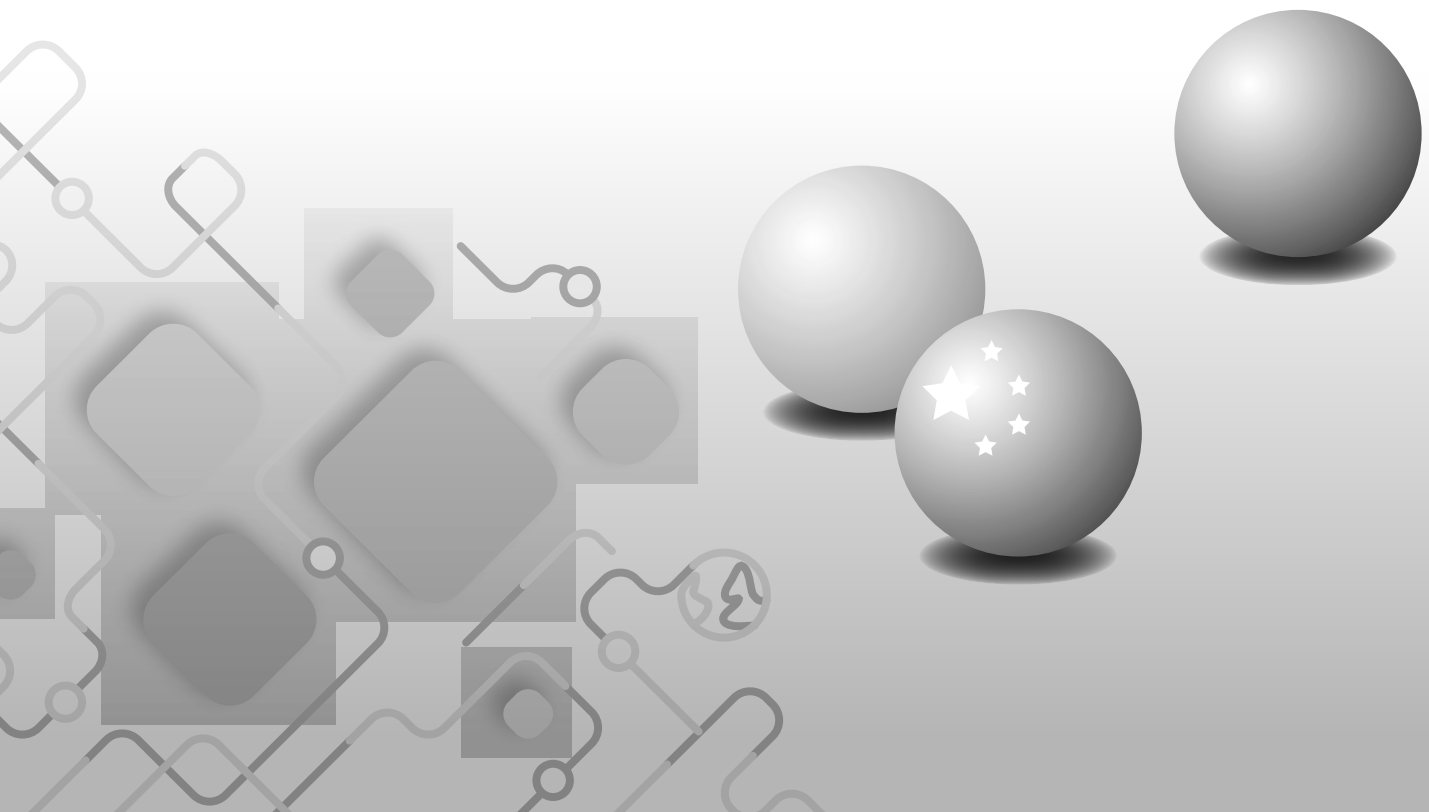
논산시 블로그: 옛 성현의 충절을 기리는 꺾리사 추향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노성 꺾리사.
백제군사박물관: 노성 꺾리사.
이욱(2007). 조선시대 노성 꺾리사와 공자 사당. 종교연구, 47, 1-35.
충청투데이(2019.06.18.). 충청유교문화원 착공, 지역 정체성 확립 계기 삼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노성 꺾리사.
향토문화전자대전(네이버 지식백과). 기호 유학의 중심 논산.

충남 도·시군의 중국 교류 동향

2019년 상반기 충남의 중국 교류 동향

전춘복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1. 충남도의 대중국 교류 추진 동향

㉠ 충남도, 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개최



일시 4월 10일

장소 태안 안면도 오션캐슬

대상 중국 12개 지방정부 대표단
단체 40여 명

목적 충남도와 교류 중인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영역 확대, 향후 충남 시군의
대 중국 교류 증진

자료: 충남넷

㉡ 한중 여성 경제인, 중국 저장성, 장쑤성과 경제 협력 강화



일시 4월 21~24일

장소 중국 저장성

대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세종충남지회
- 충남 여성 경제인

목적 현지 교류단체와의 우호 증진,
여성 경제인들을 위한 양호한 경제
여건 조성

내용 - 저장성 부녀연합회와 교류회의
- 알리바바 캠퍼스 방문
- 상하이 코트라무역관 방문
- 장쑤성 여성기업가협회간 업무협약 체결
-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와의 교류회의

자료: 충남넷

❶ 충남교육청, 중국과의 학생 교류 강화



일시 5월 19 - 25일

대상 상하이 고등학생 80명,
인솔단 20명 (총 100명)

내용 - 역사 유적 탐방
- 학교와 가정생활 체험

계획 10월에는 충남 학생들이 상하이로 방문

자료: 충남넷

❷ 충남도, 구이저우성과 건설분야 교류 강화



일시 2월 18- 20일

장소 충남 내포신도시, 보령-태안 간
연육교 건설현장

대상 중국 구이저우성 주택 및 도농건설청
관계자, 도 건설정책과 관계자

목적 각 지역특색에 대한 맞춤형 해결방안 모색,
건설도시행정 분야에 대한 정보 교류

자료: 충남넷

2. 충남 시·군의 대중국 교류 추진 동향

❶ 공주시, 징더전시(景德镇市)와의 교류협력



일시 2월 21일

장소 공주시청 회의실

목적 '도자기 고향'으로 불리는 징더전시와
교류를 통해 계룡산 철화 분청사기의
발전에 이바지

내용 공주시와 징더전시 우호협력관계 구축

자료: 충남넷

❶ 보령시 유소년 축구단, 중국 동북아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참가



일시 5월 8일~11일

장소 지린성 옌벤 축구문화타운

대상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0개 팀

내용 동북아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참가

자료: 충남넷

❷ 천안시, 산둥성 원당구와 의료교류 본격 추진



일시 5월 20~24일

장소 단국대학교병원

내용 단국대학교병원·치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화인메트로병원,
더보스톤치과병원, 삼성비뇨기과의원,
케이엠성형외과의원 견학

❸ 천안시, 베이징국제관광박람회서 천안 의료기술 홍보

일시 6월 17일 - 21일

장소 북경국제관광박람회

내용 천안시 대표의료기술 홍보, 에이전시 팸투어, 이주여성 의료코디네이터 현장실습 등

자료: 충남넷

❹ 논산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일시 4월 8일 ~

대상 고등학교 2학년 1,400여명,
중학교 3학년 1,000여명

내용 중국 상하이 항일독립운동 역사유적지
일본 백제문화권 역사문화 탐방

의의 역사 산교육의 장인 임시정부청사 등
유적지를 방문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자료: 충남넷

● 서산시, 베이징국제관광박람회에서 관광홍보관 운영



일시 6월 18-20일

장소 북경 컨벤션센터-‘북경 국제관광박람회’

내용 - 관광박람회에서 서산시 관광홍보관 운영
 - 허페이시, 룡청시와 위챗을 통한 사전 마케팅 준비 및 당일 B2B상담회 개최
 -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를 통해 현지 여행사와 여행상품 기획업자 대상 세일즈 추진

계획 하반기 중국 여행업체 및 상품기획자와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팸투어 실시 예정

자료: 충남넷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40회 충청중국포럼

제40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중국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제40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5월 29일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前 중국 쑤시성 웨이난사범대 교수 강현성 박사가 『중국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그림1> 제40회 충청중국포럼 사진

- 강성현 박사는 중국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판시와 후흑이 빠질 수 없는데 중국 고전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알아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주역, 노자, 장자, 맹자 등 인물의 고전속 4자성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아울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을 설명하였다.
 - 또 해외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보인 중국인들의 모습에 대해 소개하였는데, 아더 헨더슨 스미스는 체면치레, 부정확, 시기·의심 등 단어를 사용해 날카롭게 지적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손문, 보양 등 9명의 작가들의 시각에 비춰진 중국인들의 모습도 소개하였다.
 - 강의의 핵심인 판시와 후흑을 소개하면서 북·중의 판시에서 주목할 부분인 한국전쟁당시 모택동의 아들 모안영을 북한에 안치한 사건을 소개하면서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판시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후흑은 ‘두꺼운 낮가죽과 시커먼 뱃속’을 의미하는데 ‘후흑학’이라는 책은 공직사회의 필독서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충남의 대중국 교류를 위해 ‘충남 한중문화교류협회(가칭)’를 설립해 충남권 한중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였다.

● 강의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 충남도 수산자원과에서 오신 김팀장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도 중국의 판시가 어느 정도 접목된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강성현 박사는 일대일로는 중국의 또 하나의 관계망 구축사업이라 하였다. 이부분을 소위 ‘약탈경제’와 유사하게 들여다 볼 수 도 있는데 이는 노자의 ‘빼앗으려거든 먼저 주어라’라는 중국식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활용해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구축하고, 중국이 비록 대국이더라도 관계를 이용해 우리만의 이익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041-840-1175, quanchfu@cni.re.kr)

제41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신남방정책과 중국 연계 방안’

- 제41회 충청중국포럼이 지난 6월 26일 충남연구원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민귀식 교수가 『신남방정책과 중국 연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도 및 시군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그림1> 제41회 충청중국포럼 사진

- 민귀식 교수는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에 대해 소개하였다.
 - 신남방정책의 대상은 남아시아 11개 국가인데 사실상 아세안지역이 그 중 10개 국가인 것을 감안하면 아세안지역이 신남방정책의 대상이나 다름없다 하였다.
 - 또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의 전체 인구가 20억에 임박하며 시장은 아직 젊고 역동적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신남방정책에서 중국을 배제하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특히 중국이 해상실크로드를 구축하면서 이미 중국자금이 많이 투자되어 있고 항구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에 중국이 투자를 많이 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 따라서 이미 남아시아 시장에서 자리 잡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경쟁을 우회적으로 피하고 특히 중국과의 적절한 관계 구축에 따른 우리만의 전략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하였다.

● 민귀식 교수의 강의를 끝난 후 종합토론이 있었다.

- 충남도 균형발전담당관실 육안수 팀장은 서울로 지방의 인력들이 빨려가듯이 혹시 중국과의 철도망 연결도 유사한 현상을 야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면서 충남에서 논의 중인 해저터널 건설에 대한 의견을 문의하였다.
- 장기혁 팀장도 환황해권 거점 마련이 도의 큰 전략이기도 하고 충남 더 나아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 이에 대해 민교수는 환황해권을 겨냥하는 경제벨트 조성, 환황해권 거점 마련은 모두 아주 좋으면서 아무래도 약간의 쏠림현상을 발생하겠지만 우리에게도 동북아 경제권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좋은 전략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나 인천은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면서 해저터널 건설 건에 있어서도 충남의 항구 경쟁력 수준이나 특히 도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정책적으로 네거티브식의 규제이고 한국은 포지티브식의 규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따라 배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가지면 좋겠다고 조언하였다.

※ 본 포럼소식에서 사용한 중국 용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을 준용하여 표기하였으나 한자의 한국어 발음이 익숙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함

문의 : 충남연구원 (041-840-1175, quanchfu@cni.re.kr)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9.6)

호수	발간월	주 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축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제15호	2017년 9·10월	생태문명 전략과 농촌 개발: 중국 현대 농업정책의 해석
제16호	2017년 11·12월	중국 수산업의 최근 발전 동향
제17호	2018년 1·2월	중국 전기자동차 발전 현황과 시사점
제18호	2018년 3·4월	2018년 중국 양회(兩會)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
제19호	2018년 5·6월	충남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1차 산업
제20호	2018년 7·8월	충남 시·군의 대중국 수출입 구조변화와 시사점: 1차 산업
제21호	2018년 9·10월	중국 지방정부의 온라인 정무서비스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제22호	2018년 11·12월	시도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활용현황 분석
제23호	2019년 1·2월	중국 동북3성 경제·산업 현황분석 및 시사점
제24호	2018년 3·4월	중국 하북성 항일유적지 현황과 시사점
제25호	2018년 5·6월	중국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현황 및 시사점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